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5.04 VOL.114

포커스
공판장 출하예약제,
소값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우자조금소식
'한우사랑 나라사랑' TV광고 16일부터 방영
3기 후반기 한우자조금 신임 집행부 출범

목장탐방
경기도 안성시 희망목장

우리한우판매점 탐방_경기도편
가평축협한우명가

2015년 한우자조금 캠페인 광고

CONTENTS

APRIL2015 VOL114

포커스

06 **공판장 출하예약제**_소값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우자조금 소식

03 인사말_김충완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
04 인사말_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05 인사말_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10 '한우사랑 나라사랑' 편 TV광고 16일부터 방영
11 TV방송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 전달
12 3기 후반기 한우자조금 신임 집행부 출범

한우소식

13 전국한우협회, 제8대 김홍길 회장 취임

정보마당

14 **목장탐방**_경기도 안성시 희망목장
16 **한우시황**_4월 한우 관측
18 **우리한우판매점 탐방(경기도편)**_가평축협한우명가
20 **뉴스클리핑**_이달의 이슈
22 **생활정보**_새봄, 야외활동 할 땐 '꽃보다 건강'

독자마당

23 **애독자퀴즈**_퀴즈 및 독자투고

위기의 한우, 새로운 도약 위해 노력할 것

김 충 완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충완입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FTA 개방으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범람,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등 번식농가수가 크게 줄어들어 한우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놓여있는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료값 인하,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정부의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한우농가 스스로 한우사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한우농가분들께서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자조금에서는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한우 가격 지지, 신규 소비층 확대를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우리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으로서 조직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역할과 소통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한우자조금이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조금 투명성 확보하고 대정부 정책팀 구성할 것

이 근 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10만 한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이근수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줄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헤쳐 나갈 방침입니다.

한우산업이 망하면 농업이 망하고,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0년전 동학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바로 세운 농민혁명가처럼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한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난 4년간 한우농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자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업 효과는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조금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농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사업 활동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도·시·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우산업의 정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칠 정책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한우소비판매활동을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는 합심해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조금이 협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우산업을 지키고 있는 한우농가 여러분! 이 땅의 자존심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산업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읍시다

김 홍 길 전국한우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 신임 회장 김홍길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어려운 한우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산업을 우리 농촌의 가장 든든한 근간산업이자, 농업과 농촌을 이끄는 한우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축산업의 대외적인 힘을 키우고 저변을 확대해, 한우산업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대정부·국회 활동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만큼 정기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과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의 현안 및 대책을 도출하여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우인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우를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모여 협회를 구성한 만큼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소외된 시군지부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우농가 회원을 확보하는데 시군지부가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협회 회원, 시군지부, 도지회, 중앙회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판장 출하예약제

“소값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농가·협회·축협 관계자, 현 제도에 불만, 보완 필요

“출하예약제 하고부터 농가는 소값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 대목에 소값이 거꾸로 내려간 것도 출하예약제 때문입니다.”, “예약배정 받는 거,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축협도 괴롭습니다. 소값이 안 나와도 꾸준히 빼야 하니까요.”

공판장 출하예약제(이하, 출하예약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가들은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현 제도의 모순점들을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후 소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예약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일부 농가뿐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면 출하예약제가 이처럼 농가들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가와 협회 관계자, 축협 출하담당자, 농협음성공판장 관계자 등을 만나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봤다.

문제점 ONE
출하예약제 때문에 소값이 안 오른다?

출하예약제 시행 당시, 공판장에서 차상대기를 하며 4일을 기다릴 경우 70kg가 감량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육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출하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많은 농가들이 공감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채 안 된 현재, 소값 하락을 이유로 농가 대부분이 출하예약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농가들은 소값이 떨어져도 예약 때문에 소를 출하해야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항상 일정 물량이 보장돼 있어 굳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하예약제가 농가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농가는 "출하예약제 시행전만해도 1kg당 지육단가가 평균 16,000원대였는데 시행후 14,000원 대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2,000원 가량 소값이 떨어질 경우 차량 1대당 거의 소 한 마리 값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판장 출하예약제 전후의 지육평균가격

년도	경락두수	평균가격	년도	경락두수	평균가격
2009	71,710	16,446	2012	96,969	14,170
2010	82,064	16,315	2013	107,744	13,535
2011	75,867	13,537	2014	108,389	14,772

※음성공판장기준, 2011.8 출하예약제 시행 〈출처 : 농협축산정보센터〉

문제점 TWO
예약물량 배정이 공정하지 않다?

더 큰 불만은 그 예약물량 조차도 배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북의 또 다른 농가는 "축협 조합원이 아니거나, 축협사료와 톱밥을 쓰지 않는 경우 출하예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는다"며 "어차피 명절 때는 받지도 못하고, 그 마저도 축협 관련 농가들의 전유물이 되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료와 같이 축협의 경제사업 품목이 타사 제품보다 비싼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충북의 한 농가는 "축협에 예약제라는 칼을 줬기 때문에 제품이 비싸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예약물량 자체가 적다보니 '사적인 인맥에 의해 축협 출하 담당자가 임의로 순서를 당기거나 물량을 배정한다'는 오해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축협 출하 담당자들은 조합 제품을 많이 쓰는 농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소가 많으면 사료도 많이 구매하고, 사료를 많이 쓰는 농가가 출하물량 또한 많게 마련이라는 것. 그래서 예약물량 보유량이 일선 축협의 경제사업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곳도 있었다. A축협 출하담당자의 경우 "예약한 뒤 소값이 떨어졌다고 출하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출하정지 등 페널티를 주는데, 각 조합마다 내부규정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 B축협 출하 담당자는 "출하취소 물량 등 여유분이 생길 경우 대기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점 THREE
출하 예약두수를 줄이면 된다?

한편 농가들은 출하예약제 개선을 위해 예약두수를 줄이거나 거꾸로 늘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의 한 농가는 "예약물량을 줄이고 비예약물량을 늘려서 가격조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가격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도 "현 예약제 하에서는 결코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며 "하루 50두정도만 예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농가도 "200두만 예약으로 하되 페널티를 없애서 농가들이 예약취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가격이 중매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협 출하 담당자도 '예약제 때문에 힘들어요'

예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 농가들뿐만이 아니다. C축협 담당자는 "차라리 예약제 자체를 없애고 옛날처럼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푸념을 한다. 규모가 작은 축협의 경우 일반예약물량 40두를 놓고 천여 개가 넘는 조합과 경쟁해야 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많아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 A축협 관계자는 예약제 시행 후 출하실적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사장님 비예약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등급이 높아져서 예약두수가 늘어나요'라고 권유해도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느냐'고 되물을 땐 난감하기만 하다. D축협 관계자는 전산으로 하는 일반예약물량의 경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려 이용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음성공판장, '상시 물량확보 덕에 타 공판장 대비 가격 높게 형성' 주장

농협음성공판장 관계자는 '출하예약제로 인한 소값 하락' 문제에 대해 가격은 시장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출하예약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3년 6월경 실제로 예약물량을 감축해봤는데, 줄이기 전과 후의 가격차가 없었다는 것. 오히려 음성공판장의 경우 도축두수를 안정적으로 매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도 전국대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상대기 시간이 2.8박 정도가 감소되어 대기 중 감량, 지육품질 저하, 차량비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농축협의 예약물량배정과 관련해, 2주전에 예약을 받지만 출하당일 8시반 전까지만 출하취소를 하면 전혀 페널티가 없으며, 농협중앙회는 출하실적과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일선 농축협에 예약등급을 배정할 뿐, 농축협의 농가에 대한 배정 기준은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감안하여 조합과 농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약물량 배정권한을 농축협에 주는 이유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에도 별도 배정권을 줄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전산시스템 자체가 내부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농축협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별 사육두수를 고려해달라는 한우협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6개월에 한 번씩 등급을 조정할

때 출하실적 점수를 100%에서 70%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출하연령대 사육두수로 조정,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예약'이라고 하면 농가들이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비예약이라고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출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예약 활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결책 ONE
소값 하한선 설정해 도축수 조절

농가들에게 '출하예약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지' 물으면 대부분 '예약제는 차상 대기시간 절감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켜 준다면 존속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예약제 하에서 소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경기도 한 농가는 "소값에 따라 농가가 팔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출발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명절 등 성수기 때만 예약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한우협회 전남도지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출하예약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홍길 신임 한우협회장은 "현재 예약제로는 전국 사육두수와 무관하게 항상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출하예약제가 농가를 위한 제도가 되려면 '가격도 예약되는 제도', 즉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정부, 생산자단체가 합의해 생산원가를 설정하고, 가격이 그에 못 미칠 때는 공판장 측에서 그 다음날 예약두수를 줄여 단가 하락을 막는 방식으로, 탄력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결책 TWO
도축두수가 많은 지역에 많은 물량 배정

또한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예약물량 배정의 경우 축협사료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하며, 물량이 적체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력제를 통해서 조사하면 30개월 이상의 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예약물량을 먼저 줘야 한다는 것. 누가 예약물량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우협회가 관할하길 바라지만, 안된다면 '출하예약조절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든 후, 해당 위원회에서 예약량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 결과, '출하예약제로 인해 소값이 더 떨어졌다'는 심리가 만연해 있었지만 농가들도 출하예약제의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출하예약제가 진정 농가를 위한 제도가 되려면,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한우협회장의 구상대로 출하예약제가 합리적인 개선과정을 거쳐 '소값 지지를 위한 최선의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우사랑 나라사랑' TV 광고 16일부터 방영

드라마 시간대 집중 배치해 주부층 공략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한우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015년 상반기 TV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영되는 TV 광고는 요즘 KBS1 TV 드라마 '징비록'에서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직한 신하, 류성룡 역을 맡아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탤런트 김상중이 모델로 출연해 '한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우사랑 나라사랑'편 TV광고는 애국이라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나라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드라마 '징비록' 속 류성룡 분을 하고 출연한 김상중이 '꼭 대단한 일을 해야만 나라를 지키는 걸까요?'라며 질문을 던져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 광고는 주부 등이 즐겨보는 주말드라마(징비록), 주말 연속극, 아침 · 월화 · 수목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에 전진 배치되고, 교양 예능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여유만만, 6시 내고향 등의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될 예정이다.

TV 방송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 전달

KBS 2TV 아침 '한우대백과' 기획 시리즈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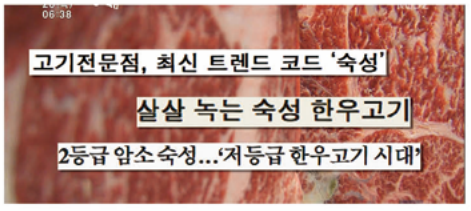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호기심을 풀어주고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KBS 2TV 아침프로그램에 방송 제작협찬 하였다. 한우대백과라는 주제로 주 1회마다 총 5회 시리즈 형태로 방송될 예정이며, 방영 영상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홍보동영상에서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한우대백과
제1편 글로벌 한우(3.19)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코스에는 반드시 한우 전문점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한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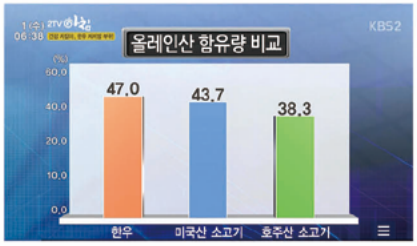
한우대백과
제2편 맛있는 한우(3.26)

방송에서는 한우를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신선육을 고르는 방법과 낮은 등급으로도 맛있게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숙성한우'에 대해 소개했다.



한우대백과
제3편 저지방 부위의 재발견(4.1)

한우의 장점으로 '올레인산 함유량이 수입육보다 높다'는 점을 알리고, 저지방 부위로도 다양한 한우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 방송예정 : 제4편 실속 있는 한우(4.8), 제5편 궁금한 한우(4.15)

3기 한우자조금 신임 집행부 출범

김충완 의장, 이근수 위원장, 황인식, 신건호 감사 등 선출

3기 한우자조금을 이끌어갈 새로운 집행부가 선임돼 향후 2년간 한우산업 기반강화와 한우 홍보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3월 12일(목)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제2연수관에서 '2015년 제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2014년도 사업결산안을 의결하고 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감사 등을 선출했다.

제3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에는 김충완(충남 당진) 씨가 단독후보로 추대됐으며, 부의장에는 신일수(경북 의성) 씨, 감사에는 현 감사인 황인식(경기 파주) 감사와 신건호(전남 고흥) 감사가 각각 연임됐다. 또한 전북지역 결원 관리위원에는 소순배(전북 장수) 씨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신임 관리위원장 선거에서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2명의 후보가 사퇴해 임관빈 후보(현, 관리위원)

와 이근수 후보(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가 경선해 치른 결과, 이근수 후보가 172명 중 89표(무효 1표)를 얻어 3기 신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한우협회, 제 8대 김홍길 회장 취임

출하예약제 개선, 사육두수 조절에 주력 밝혀

전국한우협회가 제 8대 김홍길 회장과 새 임원진의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3월 31일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구 서울경마공원)에서 '제7 · 8대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7대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강임 전임 회장이 신임 김홍길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신임 임원으로 하태문 · 김충완 부회장과 우영기 · 송무찬 감사를 소개했다.

신임 김홍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출하예약제 개선과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 비육을 통한 새로운 고급육 시장 확대, 사육두수 조절, 소비촉진에 앞장서 5천년의 한우역사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룩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화합하는 한우협회를 만들기 위해 한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먼저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 · 취임식에는 홍문표 ·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장과 성호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농민단체장, 주경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등 국회와 정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이 참석해 한우협회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철저한 기록관리 통해 우량 암소군 확보하는 게 경쟁력!

경기도 안성시 희망목장

"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내가 가진 암소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뒤, 효율적인 선발과 도태를 통해 우량 암소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14년 암소 데이터를 엑셀프로그램으로 한눈에

농업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해 직장생활을 하다 15년 전 귀농해 현재 172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희망목장(경기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의 이형우(51세) 대표. 번식우 114두(경산우 80두, 미경산우 34두)와 비육우 58두(비육암소 9두, 거세비육우 49두)를 일괄사육하고 있는 희망목장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개체를 기록 ·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34두(암소 10두 포함)의 거세한우를 출하해 1^{++} 12두, 1^{+} 9두 등 총 21두가 1^{+}이상의 성적을 보였다. 특히 1^{++} 출현율은 전국평균(16.3%)의 3배가량 높다.

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이형우 대표

희망목장의 원칙

1. 사육중인 한우의 누적된 정보를 이용해 '궁합'이 맞는 정액을 선택함으로써 우량 암소군을 만든다.
2. 육량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량하되 육질을 보완한다.
3.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형이 작은 소, 번식력이 떨어지는 소를 우선적으로 도태한다.

이형우 대표는 개방화 시대에 농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육량'과 '고급육' 개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급육 개량을 위해서는 후대검정을 통해 암소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정액을 선택하는 계획적인 교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다. 이형우 대표는 현재 농장에서 사육되는 170여 두의 소에 대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부터의 14년간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스스로 개발한 개체관리 엑셀프로그램에는 모계 및 부계 등 한우족보, 분만내역, 호환성 보고서, 현사육현황, 거세우내역, 인공수정, 혈통내역, 암소개체기록, 출하현황 등 소 전반에 대한 현황이 기록되고 있다.

정액 품질보단 '궁합' 중시, 효율적인 선발 · 도태 거쳐

이형우 대표는 정액의 품질보다 '궁합'을 중시한다. 1등급 정액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질이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후대성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산을 하면서, 축산과학원에서 배포한 '한우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이 가진 암소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정액을 선택함으로써 우량개체를 생산해 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육량위주로 개량을 하면서 근내지방과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육량 등 개체의 능력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는 과감하게 도태하는 등 철저한 선발과 도태를 통해 암소를 개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개량의 결과로 그는 지난해 도체중 521kg과 등심단면적 114를 기록한 소를 출하했고, 그 소는 1천만 원(부산물포함)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한다.

"도체중 500kg, 등심단면적 100이 넘는 소는 일반 소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우수한 혈통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번식해 나가는 것이 결국 경영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4~5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수기로 작성한 기록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록을 컴퓨터로 프로그램화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형우 대표는 오랜 시간을 들여 개량을 반복하면서 우량 암소군을 조성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2012년 이후부터 성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하던 습관은 희망농장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줌과 동시에 농장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

4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대비 상승 전망

사육전망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대비 감소 예상

6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88만 마리)보다 감소한 274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 4~5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출하대기 물량 감소로 4~5월 국내 공급은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가격전망

• 4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대비 상승 전망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4,000~15,000원/kg(지육) 전망

– 2014년 비육우(600kg 기준) 경영비 436만원(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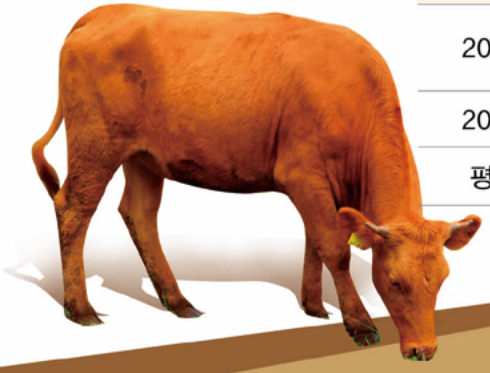
유통업체 할인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5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500~15,500원으로 전년과 평년대비 강세 전망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 원/지육kg(만원/생체 600kg)

	3월	4월	5월
2015년	14,714 (529)	14,000~15,000 (503~539)	14,500~15,500 (521~557)
2014년	13,811(496)	13,853(498)	14,009(503)
평 년	13,855(498)	13,783(495)	13,351(4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3.25)' 인용하여 한우자조금사무국교육조사부에서 재편집한 내용임]



• 3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3.30일까지의 기준임.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구 분			평년 ('10~'14)	2014년		2015년		대비(%)	
				2月(A)	3月(B)	2月(C)	3月(D)	C/A	D/B
도축두수(두)			827,324	51,653	66,456	79,591	63,586	54.1	△1.8
경매두수(두)			379,185	29,520	35,030	38,275	35,996	29.7	5.0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3,584	13,796	14,267	14,480	5.0	4.9
	거세우		14,569	14,221	14,561	14,530	14,848	2.2	1.9
	비거세우		10,624	11,530	11,594	12,030	12,109	4.3	4.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197	4,130	4,595	4,813	9.5	16.1
	송아지	암	1,511	1,627	1,455	1,911	2,013	17.5	39.9
		수	2,045	2,215	2,196	2,274	2,418	2.7	10.6
불고기(1등급/kg)			61,957	31,380	31,760	36,260	36,695	15.6	15.5
등심(1등급/kg)			32,690	62,450	61,020	66,010	64,891	5.7	6.3

• 한우농가 소득 추정('15.3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6,743	5,997	4,356	1,641
1+	15,351	5,499		1,143
1	14,516	5,200		844
2	12,990	4,653		297
3	11,896	4,261		△95

* 경영비 : '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356천원/600k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백한 봄 맛 한우 가평축협한우명가

우리한우

코끝에 봄내음이 가득한 요즘, 나뭇가지마다 푸른 물을 길어 올리며 파릇한 새싹을 틔워내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생동하는 만물과 달리 사람들은 나른한 춘곤증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온갖 봄꽃이 말갛게 얼굴을 내민 요즘, 따뜻한 햇볕을 쫓아 봄기운 가득한 가평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이 상춘(賞春) 여행길에 들르기 좋은 한우 맛집 '가평축협 한우명가'를 소개해 본다.

빼어난 마블링과 풍부한 육즙에 '감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은 남이섬으로 가는 길목, 오목교 좌측 골목에 가평축산농협 한우명가가 자리하고 있다. 넓은 주차장, 한우동상, 웅장한 원형건물이 인상적인 가평축협 한우명가는 전면이 통유리 구성돼 있으으며, 건물의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고품격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명가스페셜모듬과 명품꽃등심, 명품생등심, 갈빗살 등 다양한 메뉴 가운데 명품 꽃등심을 주문하자 빼어난 마블링을 뽐내는 선홍색의 한우고기가 대여섯 가지 밑반찬, 신선한 채소와 함께 깔끔하게 세팅되어 나온다. 석쇠 위에 고기를 얹고 알맞게 구운 뒤 한우 꽃등심을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에 탄성이 저절로 나오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입 안 가득 퍼진다. 꽃등심 외에도 명가스페셜모듬은 살치살,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등 특수부위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메뉴로, 가평축협 한우명가가 추천하는 메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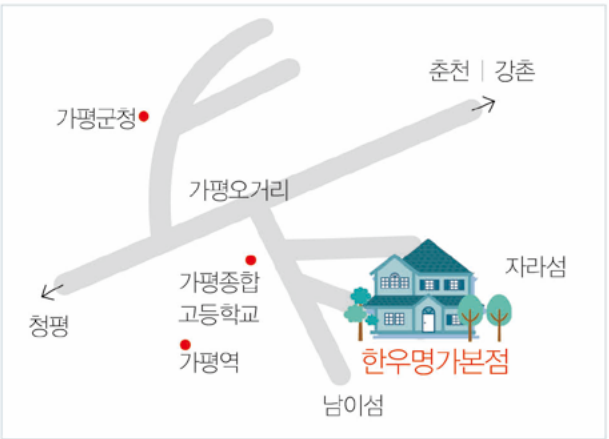
가평의 맛, '푸른연인한우'

'맛깔스런 경기으뜸 음식점'으로 선정되기도 한 한우명가는 가평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총 200석 이상의 좌석과 7개의 개별 룸이 준비되어 있어 커플부터 가족모임, 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 장소로 적합하다. 1등급 이상의, 해썹(HACCP, 축산물 위해요소 안전기준)인증을 받은 한우(거세우)를 매일 축산물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가평축협 한우명가의 고기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신선하다.

한우명가는 2008년 3월 가평 본점을 시작으로 설악점과 청평점, 상하점을 차례로 오픈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맛과 육질, 안정성을 강화한 가평축협의 한우만을 사용한 결과, 이제는 소비자도 인정한 대표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한우명가는 인근의 남이섬과 용추계곡, 호명산, 화악산,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 관광지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푸른연인한우'가 가평의 맛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평축산농협한우명가는?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 19
- **전화** : 031-851-1592~5
- **홈페이지** : http://gphanwoo.com
- **영업시간**(판매점) : 오전 9시~ 오후 10시
- **식당** : 오전 11시~오후 10시
- **휴일** : 신정, 설, 추석, 근로자의 날
- **메뉴** : 명가스페셜모둠(180g) 40,000원, 명품꽃등심(180g) 38,000원, 명품생등심(180g) 35,000원, 한우 갈빗살(180g) 35,000원, 생갈비(250g) 40,000원, 한우숯불양념구이(180g) 20,000원, 양념불고기(200g) 13,000원



한우농가들이 최근 한우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동안 일간지 및 축산전문지에 소개된 한우관련 이슈를 간추려 게재합니다.

한우 출하 줄어도 도매가격 상승 '미미'… 소비 위축 심화

GS&J 한우분야 동향 자료

한우 출하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도매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GS&J는 최근 한우분야 동향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GS&J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축두수가 전년 동월대비 7.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은 6.2% 상승하는데 그쳤고, 11월에는 도축두수 감소율이 13.3%로 더 커졌으나 가격 상승률은 5.1%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12월에도 나타나 12월 도축두수가 7.6% 감소했지만 가격상승 자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1월의 경우 전년동월에 비해 도축두수가 15.2% 감소했지만 도매가격은 오히려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6일자〉

"고지혈증, 육류때문 아니다"

이찬복 울산세종현대병원장 축산식품학회서 밝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의 원인은 육류 섭취보다 탄수화물이나 흡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울산세종현대병원 내과 이찬복 원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축산식품학회에서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고지혈증에 대한 이해와 채식의 배신'이란 주제 발표에서 고지혈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을 경우 동맥벽에 침전되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은 육류 섭취보다 탄수화물 섭취나 흡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03월 06일〉

김영란법,'FTA 충격보다 더 크다'…농업 유통시장에 직격탄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는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와 꽃을 키우는 화훼농가다. 명절 기간에 소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한 상자에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돼, 공직자윤리강령이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크

명절 과일, 축산물 선물 감소 예상

게 저촉되기 때문이다. 국내 소 도축물량의 10%가 명절 선물용으로 유통되고, 이 가운데 공직자와 공공기관, 언론사 직원들에게 최소 2% 정도가 공급된다고 보면 소사육 농가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03월 20일〉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기여도 등 인정못해"

한우협회, 지자체 상대 재소송 준비

한우농가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소송을 다시 전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수입기여도 무효'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 판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홍길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3명을 선정, 지급결정서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한 뒤 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3월 27일자〉

공정위 사료값 담합 조사에 한우농가 뿔났다

한우협, 민간사료업체 사료값 인하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업계가 사료값 인하를 촉구하고 났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3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와 관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담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료업체에 대해 가격인하를 촉구했다.

〈축산신문 3월 27일자〉

'한우가 삼겹살보다 싸요' 中 관광객도 찾는 마장동 우시장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축산물시장의 서문 입구. 한 손에는 관광책자를,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든 중국 관광객들이 2015번 버스에서 삼삼오오 내린다. 입구 주변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한 가게를 골라 고기를 주문하고 식당으로 올라간다. 국내 최대 규모인 마장동축산물 시장에서 고깃집 '우리한우'를 운영하는 서한준씨는 "요즘 인터넷 블로그나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오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대문에서 한국 옷을 산 외국인들이 가까운 마장동으로 와서 한우를 맛보는 것이다.

〈조선일보 3월 27일자〉

새봄, 야외활동 할 땐 꽃보다 건강

꽃가루 알레르기는 봄철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다. 특히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4~5월엔 알레르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비염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원인이 되며 방치할 경우 축농증과 중이염, 만성기침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재채기가 계속되고 콧물이나 눈물이 흐르는 등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의 경우 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다.

이러한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은 소나무와 느릅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일본 삼나무 등이고 심한 환자에게는 집 안의 화초도 위협이 된다. 또 고양이나 강아지 털도 자극이 될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꽃이 피는 4~5월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토마토와 딸기 등 영양 순환을 돕는 음식들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기관지뿐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봄철의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다. 이 시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황사 예보가 있을 때 환기를 자제하고, 실내에 공기 정화기나 가습기를 준비해 실내 습도를 50%로 유지해주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하자. 또한 향도 좋고 빛깔도 각양각색인 건강차들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건강차를 늘 가까이 두고 마시며 코와 목을 적셔주고 기분까지 환기시켜보자.

독자마당

QUIZ

피곤하고 나른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진속 다른 곳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우과 관련된(사양관리팁, 민원, 칭찬하기 등) 사연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소식지에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해 드립니다. 한우농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내 애독자코너

※3월호 퀴즈 당첨자

임산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최종천 충남 청양군 정산면
김영기 강원 철원군 철월읍
형종우 전북 남원시 동충동
홍은희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김명숙 경북 김천시 대덕면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5년 04월호 제11권 통권 제114호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신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2015 한우홍보대사 김상중

신뢰를 위한 선택
우리한우판매점 모집

우리한우판매점은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모집기간 **2015.4.23**(목)~**5.7**(목)

신청대상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

문의전화 전국한우협회 사업관리국(02-525-1053/내선 109,110)

*안내자료와 신청서식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 참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